

사(私)교육 대안적 모델인 기독교학문훈련센터(CETC)

-CETC(Christaian Education Training Center)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現) 교육현장에서의 기독교학문운동
2. 기독교학문운동의 핵심적인 교육기관들
 - 2-1. 기독교학문운동의 공교육 차원의 교육기관들
 - 2-2. 기독교학문운동의 사교육 차원의 교육기관들
 - 2-3. 기독교학문운동의 사교육 대안적 모델인 CETC
3. CETC
 - 3-1. CETC의 필요성
 - 3-2. CETC 개관
 - 3-3. CETC의 교육과정과 그 특징
 - 3-3-1. CETC의 교육과정
 - 3-3-2. CETC의 교육과정의 특징
 - 3-4. CETC의 운영계획의 개관과 남은 과제
 - 3-4-1. CETC의 운영계획 개관
 - 3-4-2. CETC의 남은 과제
 - 3-5. CETC의 미래와 사명

III. 결론

I. 서론

오늘날 교회와 학교교육의 피교육자와 교육자 모두가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개혁의 갈망을 가지고 있다. 교회와 학교가 공통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기관이지만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의 개혁되어야 할 역사적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학교는 학생(學生)들의 인격을 함양시키며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며 사회의 필요한 사람으로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의 노예가 되어 교사들은 지식전달의 수단으로 전락해서 교사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으며 학생들은 집단따돌림(왕따), 학교폭력, 흡연, 음주, 음란사이트, 성폭력 등등 다양한 문제들로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거룩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지만 그 거룩성은 희미해지고 상실되어가고 세속적인 사고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지 않는가?

교회와 학교가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인재들을 찾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모순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러면 이 총체적인 교육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세속적인 공신력에 개의치 않고 21세기의 교육현장의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바라는 인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복음 증거자로서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며 나아가 주님이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시작을 기독교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학문운동에 대하여 고찰한 후 기독교학문운동의 공교육적, 사교육적 대안교육기관들을 살피고 필자의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논문¹⁾을 참조한 21세기 사교육적 대안교육기관의 모델로서 CETC²⁾의 전반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본론

오늘날 영적으로 허술해져 있는 기독교학생들이 학교와 사회로 나가서 세속문화에 휩쓸려 버리고 교회와 학교, 신앙과 학문 등의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교회의 가르침과 학교의 가르침과의 모순 속에 세계관과 인생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이들이 이중 인격적인 신앙의 형태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 때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

1) 2005 고려신학대학원 졸업논문 “기독교학문운동을 통한 학원의 복음화 -기독교학문공동체의 모델인 기독교학문훈련센터(CETC)중심으로-”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 268 호179-1.

2)CETC: Christian Education Training Center, 이하 본 논문에서 CETC로 사용.

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빛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것과 이것인 한국교회의 미래상이 되진 않을까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학문의 시기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회가운데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지 않고 신앙 안에서 온전한 학문을 연구하며 올바르게 미래의 기독지도자로 세워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왔다. 이런 가운데 본인의 학원과 학교에서의 학생들과 동고동락했던 강사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게 된 비전인 기독교학문공동체로서의 구체적인 모델인 기독교학문훈련센터(CETC)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탁월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문적 우수성과 신앙적 경건훈련을 받을 수 있는 미래의 사교육 기독교대안모델인 CETC에 대하여 전반적인 각론을 하려고 한다.

1. 현(現) 교육현장에서의 기독교학문운동

기독교학문운동에 관하여 언급하기 전에 먼저 별도로 원론적인 교육과 기독교교육의 정의와 철학과 교육이념에 대한 해석학적 측면의 기본적인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를 기독교학문운동의 역사와 배경 설명에서 CETC의 핵심주제의 중요한 요소와 함께 더불어 다루기로 하겠다. 필자는 본 논문의 논제인 CETC에 대한 각론 이전에 CETC의 전반적인 교육방법과 교육과정의 신학적, 논리적인 기초가 되고 있는 기독교학문운동의 당위성과 기독교학문운동의 사교육적 차원의 대안 교육기관인 CETC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겠다.

학문을 통하여 형성된 세계관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의 삶에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학문이 인간의 총체적 활동의 소산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고 이성적인 지적 활동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임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인의 기독교적 신앙의 양심을 속일 수 없다. 오늘날 학문계는 이러한 신본주의적 기준을 무시한 채 전혀 객관적일 수 없는 자연주의적 세계관³⁾을 최고의 우위에 두며 학문 연구에 매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의 제반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이러한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교교육의 가르침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학문과 신앙의 충돌은 그 학문의 바탕에 깔려 있는 전제인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기독교 신앙의 유신론적 세계관과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학문운동의 정확한 방향성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학자와 기독학생이 올바른 학문연구의 선택을 위해서는 통제신념⁴⁾ 속

3) 자연주의적 교육의 용어적 배경은 중세시대 종교적·봉건적 권위나 특권에 따라 인간의 지적 욕구에 대한 억압 속에서 문예부흥을 계기로 중세의 신에 의한 초자연적인 권위나 특권에 입각한 교육을 극복하여 인간에 내재된 자연성(自然性)을 신뢰함과 동시에 그것을 조장하며 개발하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이와 같은 자연주의적 교육풍조를 오늘날 학교교육의 핵심인 과학적 교육학의 전제가 되기도 하였다. 학교교육에 반영시킨 대표적인 사람은 J.E.드몰랭과 H.드몰랭, J.듀이와 E.L.손다이크 등이 있다.

4) 윌터스트로프(Nicolas Wolterstorff)는 “어떤 이론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자는 항상 자기의 신념의 전체 복합체를 가지고 그 일에 착수하게 된다” 고 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신념들을 통제신념이라고 불렀다. 기독교사상연구소, 1992, [창간호 기독교사상연구]. 기독교적 학문의 본질(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학문) 강용원 저. p.133.

에서 경험과의 일치성, 영역의 광대성, 다른 이론과의 체계성, 논리적인 일관성을 두루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기독교적 학문연구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⁵⁾은 인간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기초한 학문 활동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인류봉사의 목적을 염두 한 성경적 학문 활동임을 기억하고 피조세계에 대한 탐구 대상에 대한 올바른 창조론적 이해를 전제하고 획일성과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진정한 기독교적 학문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기독교학문운동의 핵심적인 교육기관들

2-1. 기독교학문운동의 공교육 차원의 교육기관들

오늘날 기독교적 학문연구를 통한 기독교학문운동은 기독교학문공동체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서 기존의 기독교학문공동체로서 공, 사교육의 대안적 기관들을 살펴 본 후 앞으로 기독교학문공동체의 성장에 보조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CETC에 대해 개괄적 요약을 통해 소개하려고 한다.

현재 기독교학문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적 시스템이 잘 구비된 기관의 예로 미션스쿨(mission school), 대안학교(특성화학교, 특성목적학교)와 기독교학교(초, 중, 고, 대학까지 포함)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독교학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안학교⁶⁾의 취지와 목적에서 구별되고 미션스쿨(mission school)과도 엄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미션스쿨의 역사적 배경에서 말해주듯이 미션스쿨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피선교지에서의 선교사를 통하여 설립된 학교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학생들의 모집기준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의 여부에 상관치 않고 오히려 처음에는 비기독교인을 위주로 전도목적의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미션스쿨을 입시경쟁과 같은 사회적 압박 속에 일반학교의 관행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션스쿨은 그리스도인교사와 학생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교육과정(curriculum)을 가지고 교수하고 학습하는 기독교적인 학문공동체를 지향하는 기독교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 기독교학교를 규명 가능케 하는 핵심기준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교사들이 기독교적 교육과정(Christian curriculum)을 통해 신본주의적 교육을 절대다수 -비록 5% 이하의 소수 비기독교학생일지라도- 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학생들을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학교가 최근 사학법 개정 등 교육정책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학교의 설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5) 강용원. Ibid., p.133-137.

6) 학원폭력, 왕따 등 인간성회복의 문제와 아동, 학생들에게 주입식, 입시위주교육에서 수업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함과 능력주의와 경쟁주의원리를 타파하고자 하며 의무교육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 자유학교, 개방학교 등 학교교육개선 대안책으로 출발했으며 대표적인 대안학교로 서머힐(summer hill, 교육가 A.S.닐이 1921년 설립)이 있고 현재는 대안학교의 형태로 현재 200여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홈스쿨운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디학교, 세인고등학교, 파랑새열린학교, 두레자연고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대안학교에 대한 언급은 CETC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될 것이다.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문화명령(cultural mandate)⁷⁾, 대위임령⁸⁾(the great commission), 부모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 관계⁹⁾등의 신학적 근거를 두고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 학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된 모델로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학교는 우선 진실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기독교학생들의 세계관의 혼란과 혼동 없이 기독교적 학문연구의 일관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반학교교육에서 실패했던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기독교학교의 이러한 장점과 동시에 보완해야 할 많은 단점들도 있다. 그 예로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의 일반학문에 대한 경험부족현상과 편협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소유하게 될 위험성, 이로 인한 사회부적응현상과 진정한 세상 속의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험성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제 기독교학교는 정부차원에서의 교육정책의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육정책의 수정을 동반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항상 내재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탁월한 기독교학교의 경영자를 통한 기독교학교의 내재된 문제들을 잘 타결해 나감과 동시에 기독교학문운동의 모체로서 하나님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독교대안교육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을 통해 초, 중, 고의 기독교학교의 활발한 설립 계획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독교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협력단체들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대학의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독교적 학문연구의 핵심적 기조(基調)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대학이 인본주의화되고 반(反)기독교화된 학문영역에서 성경적 조망과 기독교세계관 재정립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찰스 말리크(Charles Malik)박사가 말한 두 가지 큰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과 지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이 기독교대학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지성사회를 그리스도께 순복하도록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이라 본다.

앞으로 기독교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자들을 양성해 내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능숙한 기독교학자들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많은 기독교적 학문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의 우수한 학자들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러한 기독교적 학문연구에 깊은 탁월성을 지닌 학자들이 학문의 각 영역에서

7) 첫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창 1장,26장,27장,28장)을 보면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른바 학문 분과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의학, 약학, 공학 등 각 학문 분과의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위에 문화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8)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있다. 이 대위임령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이 대위임령을 전도를 위한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전도를 통해 제자가 된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풍성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학교이다. 이는 기독교 가정에서의 교육, 기독교 공동체(교회)에서 교육,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한 의미까지를 포함한다고 본다.

9)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자녀를 가질 때의 몇 가지 책임을 갖는데 기독교적인 원칙에 따라서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부모와 더불어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기독교적 교육, 신앙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책임을 교회에 전적으로 위임해버리면 안 되며 학교에서 언약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학교의 자연스러운 동기가 될 수 있다.

세워져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지성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철저하고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독교학문운동을 통한 학원과 사회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기독교학문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이 연합하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설명회나 세미나개최를 통해 교회와 제반 기독교단체로부터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받아 나간다면 이러한 대의(大義)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2. 기독교학문운동의 사교육 차원의 교육기관들

지금까지는 기독교학문운동의 핵심적인 공교육 차원의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독교학문운동의 사교육 차원의 교육기관의 예로 공부방과 방과 후 학교를 들 수 있다. 90년대까지는 교회운영의 공부방이 서민층 학생들의 교육과 교회의 전도목적이 하나가 되어 교육기관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갈수록 그 영향력은 줄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운영의 공부방의 교육의 질 문제로 인해 서민층 가정도 자녀교육 교회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욱이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학부모의 심정이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진 실력으로 공부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부모들이 사교육적 차원에서 유명학원과 고액과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교회운영의 공부방에 관한 투자와 집중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이 부족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교육 시장규모는 공교육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약 13조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로의 투자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다. 이러한 교육의 악순환 속에 기독교가 모든 학문적 영역을 세속학교에 맡김으로 교회와 기독교학생들의 영적 영향력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일 때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일의 교회교육만으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교회가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소수의 기독교학교를 통한 기독교학문운동의 노력만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주중 학교 공교육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교육마저 입시위주의 성공주의로 흘러간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교회는 기독교적 사명을 가지고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공교육의 붕괴, 사교육의 폐단 등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인 기독교적 대안을 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독교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독교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 이반(離叛)’ 경향으로 현 제도권교육에 대한 선형적 고찰을 통해 제도권교육 밖에서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막대한 사교육의 대안적 차원의 투자금 유치에 대한 계획과 공교육의 부실성을 보충하기 위해 실제 교육현장에 있어서 공교육 이외 사교육의 장·단기적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연구 및 논의 중이다. 정부당국에서 대안교육의 활성화 단계에 있어서 특히 사교육현장인 방과 후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 가운데 특별히 종교시설의 활용방안을 구축

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학교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육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와 학교운영시스템과의 괴리현상에서 기인한 대안교육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1990년 초반부터 시작하여 큰 성장을 보였지만 현재 제한적인 학교교육과의 연계성과 사회적 인식부족, 법률·행정적 문제, 지원체제 등의 문제를 딛고 양질의 콘텐츠를 형성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필자는 좀 더 대안교육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영역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안교육의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본다. 그리고 대안교육의 활성화의 기본전제가 공교육의 보완장치로서의 기능적 차원임을 인식하고 동시에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의 효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와 자율을 통한 삶의 학습을 중시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안교육 형태의 예로 정규학교형, 주말·계절학교형, 방과 후 학교형, 문화센터형 등이 있다.

현재 정규학교형을 제외한 대안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방과 후 교실, 대안교실, 공부방 등의 형태로 사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독교에서도 기독교대안교육을 위한 형태로 접목시켜 다양한 모델로서 접근해 나가고 있다.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CETC도 정규학교형이 아닌 방과 후 학교와 문화센터형의 유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모델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차원에서 현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독교 차원에서 기존의 교회운영의 방과 후 학교나 공부방 형태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가 완전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로 사교육 차원의 기독교대안교육기관인 CETC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려고 한다.

2-3. 기독교학문운동의 사교육 차원의 대안적 모델 CETC

필자는 교회의 교육관 등과 같은 교육시설을 활용한 기독교대안교육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구상해 보고 앞으로의 기독교학문운동의 우수한 하드웨어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독교학문공동체의 모델로서 기독교학문훈련센터(Christian Education Training Center)를 제시하는 바이다. CETC모델은 정부인준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형태를 갖춘 기독교대안교육기관의 모델로서 기독교적 학문연구의 교육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재양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CETC와 기존 교회운영의 기독교대안교육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한 도표이다. 이 도표는 기독교학교와 같은 정부인가 대안학교형 교육과의 비교분석은 제외하는 것이다.

	공부방	방과 후 교실	CETC
운영구조	• 구청 등록 및 지원 형태 • 일방적 투자(자원봉사)구조	• 학원 등록 or 기부금제도 • 수급관계 구조	• 정부인준교육인적자원부 비영리 민간단체 구조 (기본적 수급구조)
교육형태	• 학과 Education 불가	• 학원등록 형태만	• 학과 Education 가능

및 특 징	(법적 근거 무) • 단지 교육장소 제공 및 자율학습 시스템 가능 • 교육 결과의 책임 약함	Education 가능 • 기부금제도(명문가교육)는 학과 Education 불가 but 학습지도법 교육 가능 • 교육결과에의 책임 강함 • 일반 사교육과의 마찰예상	학습지도법(독서지도법, 예/복습 시스템 도입, 리더쉽 교육 가능) • 사교육대안적 차원에서 교육부 인준 교육시스템 이기에 이해가능
효 과	• 단기적 교회 교육기관 활성화 방안	• 장기적 인재양성의 기회와 선교정책 일환	• 장기적 인재양성의 기회와 선교정책

<표1> CETC과 기존 사교육 대안적 교육기관들과의 비교분석 도표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TC는 교육 형태에 있어서도 공인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공부방은 교육자체가 불가하지만 정부 공인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교육기관은 자격증을 통해 교육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육시스템에 있어서 기존의 것과 상이하며 독서지도법, 예/복습 시스템과 같은 학습지도법을 통한 학생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CETC는 법적보호와 교육시스템의 부실을 보이고 있는 공부방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어 교회중심의 청소년 인재양성기관을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회는 CETC운영의 재정적 차원에서 신중하고도 투명한 경영을 통해 오늘날 사학비리와 같은 문제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기독교대안 지역단체들과 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가정의 부모와 긴밀한 협조를 얻고 학교의 교사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때 CETC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확은 기대 이상이 될 것이라 본다.

3. CETC

3-1. CETC의 필요성

최근 정부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여 서민층 학생들의 사교육적 문제해결을 위해 공교육과 연계성 가진 21세기 사교육 대안을 위한 행사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교육혁신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 앞에 CETC를 과감하게 제시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독교적 차원에서 진정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비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겠지만 기독교가 사회의 실질적인 제반문제들을 해결해 온 역사적 증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육의 문제도 기독교 차원에서 결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 온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문운동의 결실을 교육현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사회의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방안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청소년들의 주일학교 교육의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CETC와 같은 사교육 대안적 모델과 같은 기관이 필요하게 됐다고 본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 나아가 사회가 CETC와 같은 교육기관을 필요로 하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 앞에 기독교적 대안으로 기독교적 학문연구

를 통한 기독교학문운동의 진가를 발휘하고 실제 교육의 현장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통해 신앙과 학문의 통합된 교육으로 학생들을 돕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중대한 사명이라 하겠다.

3-2. CETC 개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많은 사교육 차원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정부지원과 같은 공신력을 갖추고 진정한 사교육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기관,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학문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CETC를 개괄적인 요약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우선 CETC는 기본전제가 있다. 이것은 CETC의 기본적인 교육철학을 담고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역사는 기본 전제에 입각한 교육운영의 철학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단체와 기관의 생명력은 길 수 없음을 증명한다.

CETC의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다. CETC는 일반학교의 전 과목에 대한 Teaching기관이 아니다. 즉 성적향상중심의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어떤 교육운영의 방향인가? CETC는 일반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앞서 우선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성경교육과 복음증거로 영혼구원과 지성구원을 통한 인간의 총체적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기독교세계관 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선행된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과 공부를 기본적으로 다루지만 학원식이 아닌 학습지도식 교육을 전제로 하며 Coursework를 통한 장기적 교육계획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단기적 성적향상과 같은 당장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대안교육기관들이 이러한 출세위주의 세속적 관점에 밀려 허울만 남은 설립취지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세속적인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진정한 기독교교육과 기독교적 학문연구를 통한 교육의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CETC는 분명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독교적 학문연구의 기관들은 이러한 전제를 잘 준수할 때에 그 개인과 단체와 기관은 그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CETC 교육의 또 하나의 기본전제라면 성경이 모든 학과목에 가장 우선된 과목임을 천명하고 성경연구의 과목을 정규시간에 배당하여 하나님 말씀의 집중훈련을 교육의 기초임을 인식시켜 모든 학문적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전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CETC가 기독교적 학문연구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

3-3. CETC의 교육과정과 그 특징

3-3-1. CETC의 교육과정

CETC는 기독교적 교육과정(Christian Curriculum)을 기초로 교육방법론을 채택 하지만 <표1>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존의 다른 교육체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는 CETC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 징	
CETC 교육과정	<p>a) 정체성 학습(기본적인 영성훈련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 강의학습, 독서학습, 리더쉽(지도력)학습, 공동체의식학습 등 •공동체성 - 인성학습, 영상학습, 다양한 특강프로그램(영화제작, 영화비평 등) <p>b) 주도성 학습 (동기부여 우선순위 이후 성적 향상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학습, 예/복습 시스템, 온라인 교육시스템 (차세대교육사이트 활용 및 EBS, E-Learning 학습법 도입), 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강점 있는 교재선택 강의식, 논문식, 발표식 수업) 활용, 기독교적 교육방법을 통해 제작된 교재 B 활용 - 재미있는 공부시간, 자율적 운영, 공동체 의식, 선입견 금물 <p>c) 기획성 학습(상급 Cla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차원 리더쉽(지도력) Project, 지도자 교육 (가정교육과 명문가 교육) -내용 : 동기부여-> 공부방법 -> 탁월한 지성과 영성 겸비한 지도자 (가슴->머리->노력) <p>d) 교사교육 세미나 및 학부모교육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교육-교사 역할 충실, 수동적 수업방식 지양 전인교육과 CETC Vision Trip 통한 교사역할 확인 •학부모교육-학생입학 동시 최소 8주간 교육을 통한 CETC 교육방향 확인 자기 욕심을 위한 교육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학문을 통한 진정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임 강조(자연히 성적상승, 사례확인)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
CETC 프로그램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TC 자체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동시 병행 •EBS 교육방송 강의 프로그램을 통한 일반학생 관리 •기본교과 과정 교육 프로그램 (국,영,수,과) 일반 학원형태 담당교사를 통한 학교성적, 내신대비 •CETC 특수 훈련 프로그램 (자체 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성교육 프로그램 2.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2. 자아정체성 프로그램 4. 특기적성 프로그램 5. 협동학습 프로그램 6. 대인관계 프로그램 7. 음악치료 프로그램 8. 독서 프로그램 등

<표2> CETC 교육과정(Christian Curriculum)

위 <표2>에 대해 간략히 보충설명을 하자면 CETC의 모든 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학원의 주입식의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독서학습법과 예/복습 시스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학, 영어와 같은 주요한 과목들은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집중강의식 교습을 채택하지만 기본적 교육방향은 지식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전반에 영성(SQ), 감성(EQ), 도덕지수(MQ), 창의지수(CQ)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나

아가 기독교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비전학습과 지도자교육, 공동체의식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3-3-2. CETC의 교육과정의 특징

CETC의 교육방법론의 철학적 기초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교사와 학생 간 신뢰형성과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의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증거의 목적보다 지적활동인 기독교적 학문연구가 앞서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지성과 이성과 인격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에 그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CETC 교육방법의 특징은 바로 기독교적 학문연구에 대한 동기부여에 일차적으로 주력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학생과 있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매우 현저하기 때문이다.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성공적인 공부 방법을 가르치고 나아가 성적 향상 후에 지속적인 비전훈련을 실시한다. 특별히 교사들을 흥미로운 수업진행방법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교사로 지속적으로 교사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또한 CETC는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협동학습과 일대일 도우미와 같은 공동체훈련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인재로 키우는 것에 집중한다. CETC의 전반적인 교육방법은 지속적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열린 사고로 교육방법론을 채택해 나갈 것이다.

3-4. CETC의 운영계획의 개관과 남은 과제

3-4-1. CETC의 운영계획 개관

CETC의 설립 의도는 일차적으로 제도권학교의 공교육의 보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고려함과 동시에 역사적 고찰을 통한 학교와 교회의 연계형 교육시스템과 같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권 행사를 통한 제도권학교의 억압구조 및 결핍구조에서 벗어나 기독교적 학문연구를 통한 기독교학문운동으로 건강한 인격과 정신을 소유한 미래 지도자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학벌위주의 치우친 교육정책과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대책으로서의 일환이 될 수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

CETC의 규모와 형태는 소규모 학원형태에서 대규모 센터의 형태까지 다양한 규모를 가지고 출범할 수 있다. CETC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조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우선 하드웨어적 차원으로 기독교학문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적소(的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CETC는 독립형 센터의 형태를 지향하지만 공간적, 제도적 차원의 시스템을 확보 가능한 종교교육시설이라면 기독교학문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지역교회운영의 교육관을 활용한다면 교육관 규모에 준해서 CETC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회 교육관의 경우 각 지역교회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교회교육을 위한 교육관 활용에 비해 교육관의 주중활용도는 빈약한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ETC의 운영의 기본방침은 각 교회의 교육관과 같은 종교교육시설을 활용함으로 기독교적 학문연구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전도와 지역선교의 일차적 목적을 얻수해 나가면서 교회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 차세대지도자양성을 위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교사와 학생이 상하관계가 아닌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CETC를 운영하되 전적으로 CETC교육과정에 대해 순응해야 할 의무를 가지도록 한다.

CETC 교육대상 및 학급편성은 일반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되 별도로 기초학력 부진아, 학교 부적응아와 영세민들을 우대,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를 품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교육프로그램은 방과 후와 방학기간을 활용함을 기본으로 한다.

CETC의 교육과정은 일차적으로 필수과정인 대한민국 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융통성을 가진 선택적, 자율적 교육과정을 채택해 나가도록 한다.

CETC운영에 있어서 운영책임자 및 교사와 학생선발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운영총책임자인 원장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탁월성과 신실성과 적극적 운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한다. 또한 CETC 교사는 CETC 비전공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충분한 CETC 정신에 입각한 실력과 복음의 열정을 가진 훈련받은 자질¹⁰⁾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는 것이 기본이다.

CETC는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서 사용권, 교사 및 학생선발권, 수업일수 등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다.

CETC 운영의 장점은 사교육 · 학교교육의 부담에 대한 경감 및 아웃소싱의 효과로 우선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의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적 차원에서 교회교육관 활용을 극대화함을 통해 전도의 방편으로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며 정부차원의 교육대책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하지만 CETC운영을 통해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의 교육과정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생들의 이중적인 교육방식에 대한 부적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아래 도표는 위 CETC의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 개관적 도표이다.

	CETC 특 징
CETC 설립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권 학교 공교육의 보완적 장치 마련과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학교와 교회의 연계형 시스템 필요) • 역사적 고찰을 통한 학교와 교회 연계형 모델 •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권 행사를 통한 제도권학교의 역할구조 및 결핍구조 보완 • 건강한 인격과 정신을 소유한 미래 지도자 양성

10)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자, 전문자격증 취득자, CETC교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및 일반대학 전문분야 전공자에 한하며 CETC 정신에 맞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 • 학벌위주의 교육정책의 대안
CETC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진흥법 제7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CETC 자율권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편성권 • 교과서 사용권 • 학생선발권 • 수업일수
CETC 교육과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필수 이수(학원교재 활용) • 선택이수 교육과정 융통성 부여(별도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CETC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학원형태에서 대규모 센터의 형태 무방 • 지역교회 소유의 교육관 형태에 따라 상이함 • 학년 당 최소 20명 이상
CETC 운영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TC 교육방침과 교육과정에 대한 순응 의무화
CETC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육과 같은 형태로 교사 및 강사, 전문가 영입을 통한 운영
CETC 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TC교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교사자격증 취득자, 전문자격증 취득자 및 일반대학 전문분야 전공자에 한하며 CETC정신에 맞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
CETC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히 기초학력 부진아, 학교 부적응아와 영세민들을 우대, 선정
CETC 학급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급 10명 이내, 학년제로 편성하되 시간대에 따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무학년제 편성 운영 병행
CETC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와 방학기간 활용
CETC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학부모 동의서 및 참여 신청서 제출 (양식별도)
CETC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의 부담 경감 및 아웃소싱의 효과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적 차원에서 교회교육관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인 e-Learning, ebs 방송 강의 추진 방향에 맞추어 주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부, 학교, 교회,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하나가 되어 21세기 교육혁신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대안 가능성
CETC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의 교육과정간의 충돌 가능성 • 학생들의 이중적인 부적응 현상 발생 가능성

<표3> CETC 운영계획에 관한 개관적 도표

3-4-2. CETC의 남은 과제

공교육의 일반학교와 공교육을 흡수한 형태인 기독교학교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기관들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교육방법과 운영의 장점을 흡수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참된 기독교적 학문연구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공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CETC의 일차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CETC의 우선적인 선결과제로는 자율적 CETC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교회, 제도권학교의 방침과 목표와의 연계성을 가진 CETC기관으로 인정받도록 공간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CETC에 남아있는 당면한 문제로는 교회적 차원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최소 2-3년간 비전공유를 위한 세미나와 공적인 광고 등을 이용한

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양성과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학부모-교사-학생의 4자 공조의 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CETC비전세미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정부, 학교와의 연계된 학습장 연계제, 위탁전문 평생교육 시설제 도입·지정, 특히 학교와의 공조된 교환학습 및 공교육 적응 프로그램, 제도권학교의 주5일제 학습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문화사역-영화, 연기, 레크레이션, CCM, CCD, 스포츠, 애니메이션 등-을 어떻게 접목시켜 21세기 기독교적 대안의 교육혁신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CETC 선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CETC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장치마련 • 제도권 학교의 방침과 목표와의 연계성 장치마련
당면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적 모델인 CETC 공론화 문제 • 교사양성과 확보를 위한 방안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 문제 • 학교 측과의 지속적인 연계, 협조, 지원 • 학교-학부모-CETC교사-학생 4자 공조체제를 위한 세미나 차원의 Vision 공유 필요

<표4> CETC의 선결과제와 당면한 문제

위 <표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ETC는 아직 제반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기독교전문교사의 부족, 불신학생들의 적응력의 문제, 정부의 소극적 지원 등이 있다. 전문기독교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사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불신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구축하고 재정 관리와 학생관리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도표는 CETC의 가정, 교회, 학교, 정부와의 상호원조를 통한 운영계획추진의 기본구도를 보여준다.



<표5> CETC의 가정, 교회, 학교, 정부와 상호원조를 통한 운영계획추진 기본 구도

학교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 이외에 기초교과과정에 대한 보충과 자기개발과 같은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탄력적 개방을

통해 교회교육관을 활용한 CETC와 같은 연계성을 가진 방과 후 교실형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교회교육관이 아닌 다른 여타 공공기관으로 인정된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연계형 모델을 만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교회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용되는 교육관은 종교시설인 동시에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엄연히 공인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CETC는 자율성과 창조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가운데 학교와의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상호신뢰와 상생관계로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인 형태의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의 통합형 멀티시스템이 이루어 질 것이다.

3-5. CETC의 미래와 사명

CETC는 공교육을 흡수한 기독교학교나 대안학교의 형태가 아니다. 미래의 21세기의 교육혁신적 차원과 사교육 대안적 차원의 학교와 교회 연계형 대안교육기관 모델이다. 입시경쟁으로 지식전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교사위상의 붕괴와 학생들의 학원 내의 다양한 문제로 멍든 학교를 건강한 학교문화로 만들어 갈 수 주체가 비단 학교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는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학교교육은 단지 자립,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조를 통해 많은 유익과 공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종교기관들을 활용하여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워나가는 혜안(慧眼)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CETC는 역사적 근거와 시대적 요청에 따른 자연발생적 대안교육기관이라 하겠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 수업제 실시와 더불어 제도권학교 외 사회·복지교육시설 등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이 공권력의 강제, 억압을 통한 소극적 학습참여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세계관을 선택하고 그 세계관을 따라 학문연구에 매진하도록 배려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기독교는 분명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학교 공교육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의 근원이 학교만이 아니라 CETC와 같은 연계형 교육기관에서 중재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상당부분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CETC와 같은 교육기관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비효율적 투자가 아닌 효율적 투자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CETC와 같은 21세기 교육현실에 발맞춘 새로운 혁신적 교육패러다임의 시스템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CETC의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 되고 학벌주의의 교육적 폐해의 점진적인 치유와 윤리적, 도덕적 붕괴로 인한 불건전한 문화의 근본적인 치유책의 일환이 되어 진정한 학교교육의 보완과 더불어 21교육혁신의 주역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리라 본다.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래에 기독교

교 직장. 직업의 공동체로까지 발전되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그리하여 각 분야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직업인들이 준비단계에 있는 학생들과 연계되어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이끌어 주는 쌍방간의 협력관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적인 문화의 형성¹¹⁾이 우리사회에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III. 결론

유대인 ‘탈무드’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예시바’는 A.D 70 예루살렘 제2성전이 파괴 될 당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를 통해 ‘앗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인 ‘예시바’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유대인 학교이다. 1세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랍비들이 가는 곳마다 ‘예시바’를 설립하여 흩어진 유대인 학생들을 모아 ‘토라’의 유대교 율법을 전수함과 동시에 각 학문영역을 해석, 연구를 통해 교육적 위상을 높여 현재 ‘예시바’ 출신들 중에 전 세계에 사회적 영향을 끼친 우수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바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유대인교육이 지대한 영향력을 가졌다면 온전한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교육의 영향력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을 떠난 진정한 교육의 부재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백년지대계인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인재양성이라는 큰 대의(大義)에 걸맞은 기독교교육의 전반적인 구조적 개선의 시급한 단계에 있다. 필자는 교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21세기 교육계에 교육혁신을 가져 올 학교·교회 연계형 대안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CETC(Christian Education Training Center)를 제시하는 바이다.

이 CETC는 공교육을 보완, 보충할 수 있는 사교육적 차원의 대안교육기관이 되고 또한 교회교육의 한계점에 대해 교회교육의 고유성 속에서 참된 교회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CETC는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을 이어주며 보완해줄 수 있는 하나의 요긴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CETC의 교육은 학교교육에 단지 기독교적 요소를 가미하는 차원이 아닌 신본주의적 기초로 전 학문영역에서 기독교적 학문연구의 교육기관이 될 것이다.

CETC는 각 학문영역에 실력과 함께 기독교세계관을 갖춘 교사들이 CETC Coursework을 통해 학생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자아상을 가진 자들로 세워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자아상을 정립한 학생들은 학문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인간의 합리성이나 인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삼위하나님 중심의 사회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독교학생의 미래지도자양성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21세기 획기적인 사교

11) 독일의 신학자 톨 톨리히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고 한 바 있다. 종교와 문화의 이원론에서 벗어나 기독교의 모습이 문화적인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육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CETC는 기독교사들의 관심과 더불어 가정과 교회, 학교와 정부의 전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비전을 품고 학생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기독교학문운동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 함께 동역해 나갈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성벽 중건을 추진할 때 대적들이 간교한 방법으로 수많은 방해공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셨던 것과 같이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편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시대적 사명을 가진 CETC가 기독교적 인재양성과 더불어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퉁이돌처럼 귀하게 쓰임 받은 기독교대안교육기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다.